성화랑 8호 2차시 성화랑 플러스

신앙생활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

생각 열기

오늘 주제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point

1.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기
2.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기
3. 변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기

-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궤도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져 나갑니다. 사랑의 마음, 참사랑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참생명·참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자기가 오고 가는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천 8.1.1:16)

-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개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지, 믿어야 된다니까 믿지 하는 식으로 하지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저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건들건들하고 꺼덕꺼덕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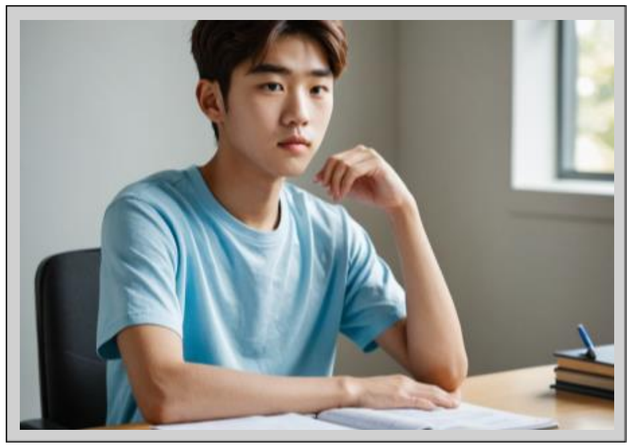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니 나도 절대적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254)

-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입장에 처해야만 감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때만 우리를 위해 수고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수고하실 것을 다짐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 대신 일하시며 싸워 나오신 하나님을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중한 십자가 도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원칙을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9-338)

함께 나눠요

기억나는 단어 나누기

무슨 단어가 기억에 남았나요?
생각나는 걸 모두 **3**번에 적고 공유해요.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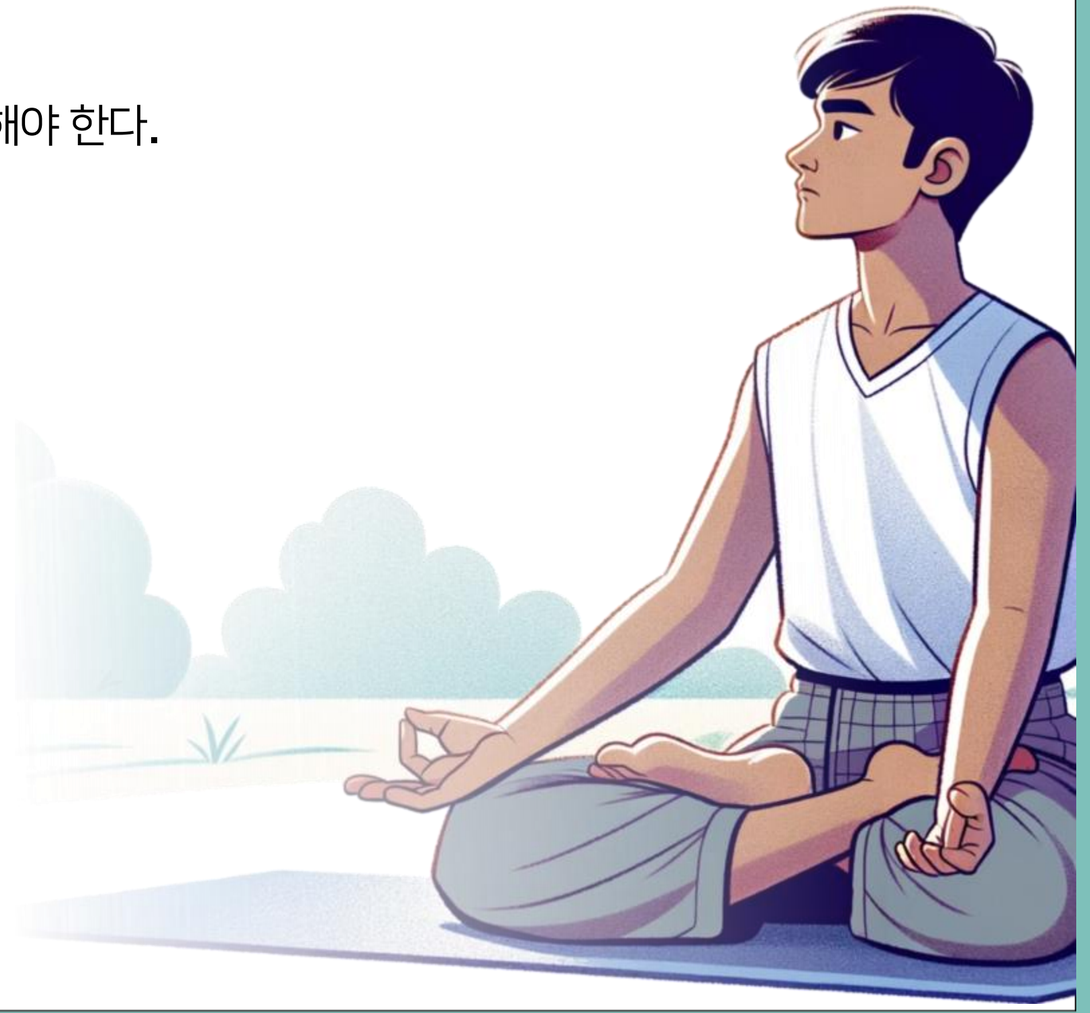
서로 떠오른 질문을 공유해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지난 주 말씀 review

1. 신앙생활은 하늘부모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하늘부모님을 중심삼고 해야 한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늘부모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서 설계하셨던

   본연의 나를 찾을 수 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방 안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벌써 그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 웃음이 하나님 앞에 플러스되는 웃음이냐, 마이너스되는 웃음이냐? 그 느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삼고 이뤄지는 주위의 모든 요건들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계발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혼자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태도를 중심삼고 살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안면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심정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체휼적인 환경을 개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에 있어 틀림없이 효과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느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천8.1.2:7)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궤도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져 나갑니다.
사랑의 마음, 참사랑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참생명·참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자기가 오고 가는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천 8.1.1:16)

기쁨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지만,
이 기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쁘면 기쁜 자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화동할 수 있고 만물의 상대적 기쁨으로 남겨 놓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하나님의 뜻길에 있어서 하는 일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천3.3.2:50)**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맺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입장에 처해야만 감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때만 우리를 위해 수고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수고하실 것을 다짐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 대신 일하시며 싸워 나오신 하나님을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중한 십자가 도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원칙을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9-338)**

신앙생활의 자세

신앙생활은 반드시 제삼자의 입장을 탈피해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든지
나 홀로 지켜 나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가까운 사람한테서 체험하지 못하는
깊은 심정세계에서 하늘을 중심삼고 홀로 감사하는 생활,
홀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늘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8.1.1:1)**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개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지',
'믿어야 된다니까 믿지' 하는 식으로 하지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저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건들건들하고
꺼덕꺼덕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니 나도 절대적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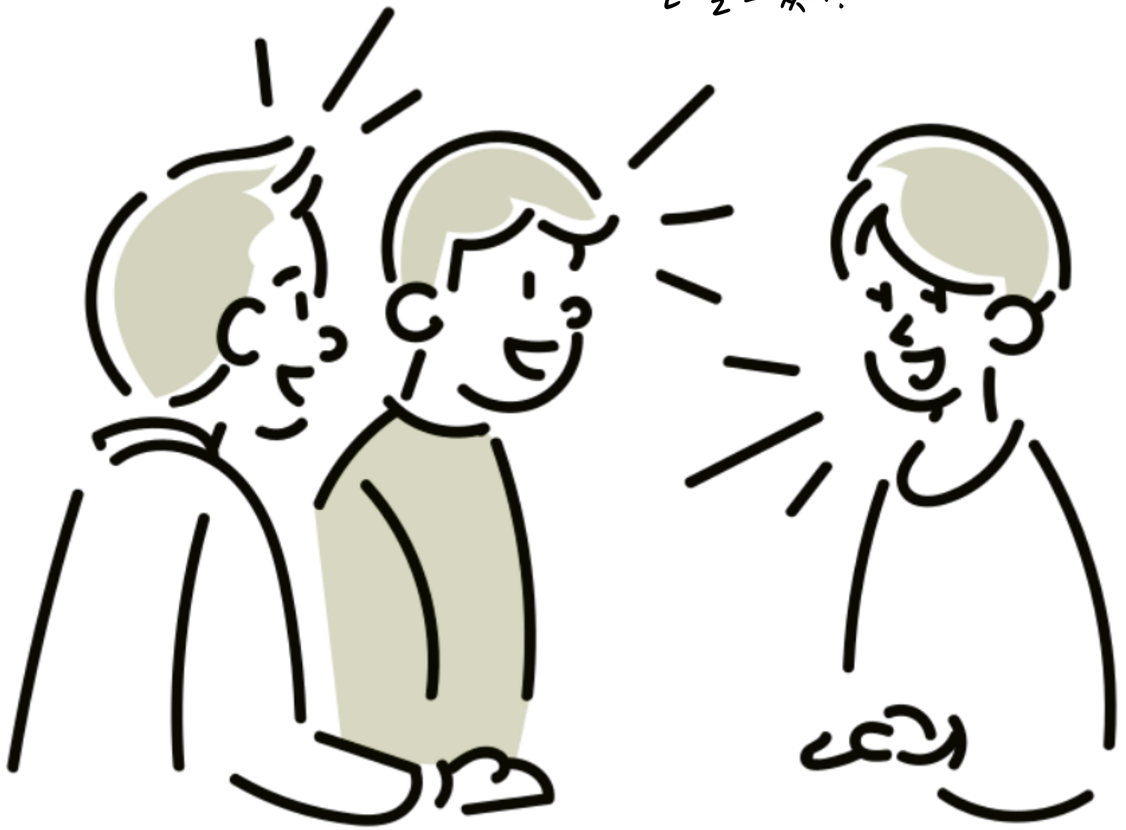
Keypoint. 스스로의 신앙을 찾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나의 신앙!

공과 <하늘부모님과 함께>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니?



슬픔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땅 위에서 탕감하는 과정 중에 참 선한 입장에서 슬픈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선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열만큼 당하면 기쁨이 천만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열만한 슬픔을 넘었어도 하나만한 기쁨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기쁨은 며칠 만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을 따라 나가는 길은 진정한 슬픔을 당하면 진정한 기쁨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고 내가 못 느끼면 자기 아내라든가, 자기 자녀라든가,
자기 조상에게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경솔히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의논하는 자세로 생활해야 됩니다.
답답하면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천9.3.4:13)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인내하고 신앙하기를...